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요엘**

요엘의 예언

(요엘 2장:28-32)

원로목사 **이종윤**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 그의 설교 중에 인용된 위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신약에 와서 한 첫 번 설교며 또 사도로서 한 첫 번 설교로 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설교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재앙의 때에 모든 것이 소멸된 후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이스라엘에 임할 축복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예언의 성취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28절).

요엘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명료하고도 긴급하게 예언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고 남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29). 당시에 임직 받은 장로 70명 중에 두 명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세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몇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엘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요한 개혁의 원리는 만민제사론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종교개혁이후 지금까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여자도 장로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따라서 여자도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직자를 너무 강조하는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자는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겠

습니다만 교회가 성직자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반성직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조직과 성직자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는 성직자도 필요하고 평신도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서로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와 성도의 이상적인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시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32절).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됨으로 새로운 시대를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며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카이로스는 예수님께서서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입니다.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행 2:44).

성령이 오시므로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것은 증거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삼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행 2:4-13).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게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와 기도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죽는 자리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요엘의 예언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 홍해작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26:25) (Rabbi, am I the One?)

2017년 6월19일(월) ~ 6월24일(토) 새벽 5시 ~ 6시

2017 홍해작전이 올해는 6월 19일(월) ~ 24일(토)까지 진행 된다. 이번 홍해작전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Rabbi, am I the One?)”를 주제로, 6일간 진행된다.

매년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6일(현충일)부터 6. 25전쟁 발발일인 25일까지 매일 새벽5시에 열렸던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장으로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간구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기회였다.

그러나 올해 교회가 복잡한 상황으로 20여 일간의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주일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홍해작전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7대 기도제목을 준비하여 오늘 주보 삽지로 첨부되었다.

성도 모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바로 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4면 참조)

- 서울교회는
1.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의 영과 악령은 쫓아내고, 교만의 여러고성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2. 500년전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처럼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총회, 노회, 한국교회되게 하소서.
 3. 모든 일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4. 홍해를 말씀과 기도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울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소생케 하소서.
 5. 거짓 사도는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할 참 사도를 보내주소서.
 6.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70주년에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을 이루게 하옵소서.
 7. 가정과 일터 그리고 총회와 노회와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호산나대학의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 새벽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회복이 교회 회복!

요한계시록강해
이종윤 원로목사

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위원회(위원장 : 오치열 장로)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올해 처음으로 통합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총회로 모임을 갖는다. 해당 성도들은 많은 참석 바란다.

예수의 비유

씨와 토양들 II (마 13:1-9)

「예수의 비유」는 이종윤원로목사가 1984년 봉직하던 신학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소재들을 직접 접하며 시공을 초월하신 진리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 비유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교훈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귀국 후 교회 강단을 통해 강론한 것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은 마음

길가에 있는 밭은 굳은 땅이다. 길가에 있는 밭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밟히고 또 밟혀진 땅을 의미한다. 그렇게 굳어진 곳에 씨를 뿌려 봐야 뿌리가 내릴 리 없다. 결국 씨는 지표 위에 그대로 남아서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먹고 말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여러 사람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부딪쳐 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째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을까?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땅은 물렁물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굳어진다. 게다가 길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밟아주니 땅은 더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굳은 땅에 씨를 부려보았자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에게 먹히고 말뿐이다. 이 비유는 진리를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 염려하고,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마음은 굳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천국을, 사랑과 희생을 말해도 그들은 개념조차 갖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형이하학적인 것만을 찾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이나 구원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뿐이다. 스스로 세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달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로구나, 길가에 있는 밭과 같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어째서 마음에 부딪쳐 오는 말씀이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가 마음 밭을 점점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 죄는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현대인의 도덕적 부패는 죄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러므로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살다 보면 마침내 천국을 거부하게 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인데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 우리는 굳어진 마음을 개간해야 된다. 쟁기를 가지고 마음 밭을 뒤집어엮어야 된다. 이것을 신

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누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길가 밭에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중의 새가 지표에 있는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공중의 새는 공중 권세자, 즉 마귀를 가리킨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은 공중의 권세가 악한 영들에게 잡혔기 때문이다. 악한 영은 무엇인가? 게으른 생각이다. 냉정한 마음이다. 이기심이다.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씨를 받았으나 빼앗기게 된다. 씨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무관심한 연고이다. 어린 아이들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한다. 어린 아이가 금덩어리와 과자를 놓고 택하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주저 없이 과자를 택할 것이다. 이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은 어떠한가? 우리 가운데 마음 밭이 있는 대로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 밭을 개간하라고 말씀하신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이 주제는 이미 개혁되어진(reformata)것과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Semper reformanda)교회의 역설적인 관계를 잘 표현한 개혁교회의 참모습이다.

개혁교회는 불변하는 성경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졌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개혁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해야만 한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의 표준을 따라 모든 악한 타협을 거부하기 위해 보수적이어야 하고 또한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진리 안에서 모든 거짓된 전통

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적이어야 한다.

이런 역설적 과제를 극복하고 균형을 유지기 위해서는 상황 따라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l)의 길만 따라가야 한다.

오늘, 우리교회는 성경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변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 또한 너무 변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한다.

2017년 홍해작전의 주제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한 가룟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는 자 중에 있다 하셨을 때 자기 방어차원에서 죄인 됨을 핑계한 말씀이다. 우리는 7가지 공동기도제목

갖고 특별히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 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와 가정이 풍랑에 파선된 선박처럼 내가 회개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해야 할 내가, 나를 들어 용상에 앉히소서 한 요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회개하자. 주여 2017년 홍해작전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 무너진 서울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홍해작전 되시기를 기원한다.

이종윤 원로목사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최규초 집사 (홍해작전본부)

주님의 몸 되신 우리 서울교회는 설립 이래 해마다 호국의 달 6월 현충일에 시작하여 6.25 전쟁까지 20일간 온 성도는 택한 주의 백성으로 온가족 온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전투에 임하는 년중 행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합심하여 북한의 핵개발 도발 위협에 있는 우리 조국과 고난 중인 우리 서울교회와 개혁해야 할 한국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

는 홍해를 오직 믿음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로 건국한지 70주년을 기다리면서 지구촌 마지막 분단된 민족이 속히 북음화로 통일조국 이루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서울교회 공동체가 사탄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에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짓사도 한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으니 참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애소하며 말씀과 기도로 회복의 응답 받고 주신 사명 이루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제사장 나라답게 개혁하며 부흥의 깃발을 들어야 할 진대 물질만능에 노획와 총회는 지 교회를 섬김 보

다 아집과 편견으로 군림하며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도록 기도 해야 합니다.

창세부터 처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특은으로 새 생명 받았으니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 섬기며 바른생활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홍해작전에 전진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마지막 한주간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응답 받는 2017홍해작전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THE MICHELIN GUIDE 2017 SEOUL 채근담

16교구 김미숙권사가 운영하는 한식당 채근담(대치동소재)이 2017년 미쉐린 가이드북에 등재 되었다.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출판하는 미식 가이드 북으로 1년마다 판을 바꾼다.

프랑스어로는 "기드 미술랭(프랑스어: Guide Michelin)"이라고 하며, 레스토랑 안내서를 따로 두고 "레드 가이드(Red Guide)"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 한국에서는 미쉐린 코리아에 의해 미쉐린 가이드가 공식 명칭이 되었다.

내노라 하는 식당들도 미쉐린 가이드 북에 등재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전문 평가원에 의한 암행 조사 방식을 취하여, 암행 평가원이 손님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원 합의에 의해 평가를 한다. 때문에 김미숙권사님도 미쉐린측 평가원이 평가를 마친 뒤 식당 정



보 확인을 위해 재차 방문했을 때에야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미쉐린 측은 레스토랑의 맛도 맛있어니 식기나 인테리어, 서비스도 엄격하게 따져 평가한다.

주위에서도 채근담은 조용히 장사하는 집인데 어떻게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 되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다. 사실 경기 침체와 메르스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난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해서 채근담을 그만 접을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

하던 중 이 같은 행운을 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김미숙권사는 감격하여 말한다.

채근담의 미쉐린 가이드 등재에 온 교회가 축하드린다.

허숙권사(편집부)

